

※경제이슈 분석 자료

# 외환위기 전·후의 소비패턴 변화 및 소비부진 원인 분석

2004. 5월

작성자 : 통계청 통계연구과 최정수·박소현  
Tel. 481-2573-2574  
([jschoi@nso.go.kr](mailto:jschoi@nso.go.kr), [shpark@nso.go.kr](mailto:shpark@nso.go.kr))

## 목 차

- I. 분석 목적 및 배경
- II. 소비패턴 변화
- III. 소비부진의 원인
- IV. 시사점

<참고> ‘Boom-Bust Cycle’의 배경 및 발생경로

## I. 분석 목적 및 배경

- 외환위기 전·후의 한국경제의 소비 패턴 변화의 특징을 분석
  - 최근의 경기흐름을 통해 소비패턴 변화와 소비부진 원인 진단
  - 소비부진의 회복 가능성 진단과 시사점 도출
- 외환위기 이전 한국경제는 수출이 살아나면서 투자·소비 순으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상승하는 패턴을 보임
- 외환위기 이후는 수출과 내수 간 연결고리가 약화된 가운데, 매년 회복과 침체를 반복하면서 경기변동성이 크게 확대
  - 최근 경기는 IT 등 특정산업 중심의 ‘수출증가→가동률 증가→소득 증가’로 진행되어 경기회복에 대한 체감은 일부 경제주체에 국한

### 경제성장 내용 비교

(2000년 기준년가격, 전년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G D P	7.0	4.7	-6.9	9.5	8.5	3.8	7.0	3.1	4.6
소 비	7.0	3.2	-10.6	9.7	7.1	4.9	7.6	-0.3	0.2
· 민 간	6.7	3.3	-13.4	11.5	8.4	4.9	7.9	-1.2	-0.5
· 정 부	8.0	2.6	2.3	2.9	1.6	4.9	6.0	3.8	3.0
투 자	8.4	-2.3	-22.9	8.3	12.2	-0.2	6.6	4.0	1.9
· 설 비	9.2	-9.6	-42.3	36.8	33.6	-9.0	7.5	-1.2	3.8
· 건 설	7.5	2.3	-12.4	-3.7	-0.7	6.0	5.3	7.9	1.1
· 무형자산	16.2	6.4	-0.6	19.5	22.3	6.4	14.2	-0.9	-1.2
수 출	12.2	21.6	12.7	14.6	19.1	-2.7	13.3	15.6	19.7
수 입	14.3	3.5	-21.8	27.8	20.1	-4.2	15.2	10.1	13.8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 II. 소비패턴 변화

### 1. 민간소비 비중의 지속적 증가

- 2002년 중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7%로 외환위기 이후 소비가 회복하기 시작하였던 99년(51.9%)보다 3.8%p 증가
- 이는 IMF 외환위기 이전의 95년(52.3%)부터 97년(52.7%)까지 민간소비/GDP 증가 폭(0.4%p)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

####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 추이(2000년 기준)

연 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민간소비	52.3	52.7	52.7	49.3	51.9	54.0	55.2	55.7	53.7	51.5

자료 : 한국은행(2003), 국민소득계정

### 2. 소비지출에서 서비스화의 진전

-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가계소비지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는 소비패턴의 구조적인 변화 발생
-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등 형태별 소비재의 비중을 보면 2003년(41.9%)은 96년(46.4%)보다 4.5%p 감소하였으며, 서비스의 비중이 96년 52.7%에서 2003년 56.8%로 4.1%p 증가

연 도	96	97	98	99	00	01	02	03	04
재화(%)	46.4	45.8	44.4	46.6	46.5	45.0	43.7	41.9	42.8
서비스(%)	52.7	53.5	57.2	54.2	53.4	54.7	55.1	56.8	57.2

- 1인당 GDP가 1만달러를 돌파한 90년대 중반 이후 소비자의 전문성 및 편의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금융, 유통, 통신, 오락·문화 등 서비스 소비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음

- 한편 주요 소비재인 자동차, 가전제품, PC 등 내구재는 외환위기 직후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2001년부터 비중이 감소하여 소비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재화 및 서비스 소비증가율 (2000년 기준)

(단위: %)

	내구재		준 내구재		비 내구재		서비스		국내소비지출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1996	6.3	(9.2)	3.3	(9.1)	4.5	(28.2)	8.0	(52.7)	6.3	(99.1)
1997	0.5	(8.9)	-4.7	(8.3)	2.9	(28.6)	6.4	(53.5)	3.7	(99.3)
1998	-35.7	(6.3)	-27.1	(6.9)	-10.5	(31.2)	-4.7	(57.2)	-11.2	(101.6)
1999	45.5	(8.5)	9.3	(6.9)	8.0	(31.2)	8.3	(54.2)	10.7	(100.8)
2000	15.9	(9.3)	9.6	(6.9)	4.4	(30.2)	7.9	(53.4)	7.6	(99.9)
2001	3.3	(8.9)	2.0	(6.6)	1.0	(29.4)	7.6	(54.7)	4.8	(99.7)
2002	9.5	(8.7)	11.0	(6.9)	2.7	(28.1)	8.0	(55.1)	6.8	(98.8)
2003	-13.2	(7.2)	-6.1	(6.5)	-2.3	(28.2)	1.6	(56.8)	-1.4	(98.7)
2004	-5.9	(6.3)	-3.1	(6.2)	-0.7	(28.7)	0.1	(57.2)	-0.9	(98.4)

주 : 1) ( )는 비중

2) 형태별 분류 등 소비지출의 하위분류는 국내소비지출에 대해서만 작성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지출 +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 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 = 가계 최종소비지출(100.0)

자료 : 한국은행(2003), 국민소득계정

### 3. 통신비와 오락·문화비 등 선택적 소비의 증가

○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의 고급화 등 소비행태의 질적 변화 발생

- 소비의 고급화로 식료·음료품과 임료·수도광열비, 주거 등 필수적인 소비에 대한 지출은 감소하는 반면, 통신, 오락·문화 등 국민들의 생활 패턴 및 질의 변화에 따른 선택적소비가 증가하여 소비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90년대 후반 이후 현저한 초고속통신망과 무선통신망의 보급에서 기인한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셀룰러폰 등 유·무선 통신 소비 증가율은 매년 높게 나타났음

연 도	97	99	00	02	03
· 셀룰러폰가입수 (천명)	6,910	23,443	27,541	58,324	63,396
· 초고속가입수 (천명)	-	339	3,914	10,400	10,378

자료: <http://www.kait.or.kr>

-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흥미로운 사실은 98년 IMF 외환위기 임에도 불구하고 통신비 소비가 97년에 비해 18.7% 증가하여 목적별 소비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임

· 이러한 현상은 최근 통신 관련 소비가 일상생활에서 확고하게 주요 필수재로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초고속인터넷 및 셀룰러 폰 이용료의 비중이 가구소비에서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한편 96년 대비 03년의 통신비 비중은 2.7%p 상승한 반면, 식료·주류음료품의 경우 96년 16.1%에서 03년 15.0%로 1.1%p 하락하여 기초생활비와 관련된 품목의 비중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목적별 소비증가율 및 비중 (2000년 기준)

(단위: %)

	식료품	주류 담배	의료 신발	임료 수도	가계 시설	의료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
1996	2.2	2.2	4.6	7.1	4.5	1.7	6.3	27.4	5.2	4.1	6.6	14.4
	(16.1)	(2.4)	(5.7)	(15.7)	(5.5)	(4.4)	(12.6)	(2.7)	(8.1)	(5.8)	(7.1)	(13.0)
1997	1.2	0.6	-3.9	6.5	0.0	8.3	3.2	32.5	2.1	3.5	3.0	4.2
	(15.9)	(2.4)	(5.3)	(16.8)	(5.2)	(4.5)	(12.6)	(3.3)	(7.8)	(5.7)	(7.1)	(12.8)
1998	-10.1	-5.8	-25.9	-1.1	-26.6	-14.1	-22.5	18.7	-17.5	-2.6	-14.2	-7.6
	(17.2)	(2.5)	(4.5)	(19.0)	(4.5)	(4.3)	(12.0)	(4.2)	(7.0)	(6.0)	(7.0)	(13.3)
1999	7.5	0.1	7.6	6.4	16.7	6.5	14.6	32.0	16.4	4.5	23.3	7.1
	(17.4)	(2.6)	(4.4)	(17.3)	(4.6)	(4.1)	(12.1)	(5.0)	(7.2)	(5.5)	(7.6)	(13.1)
2000	2.7	4.1	12.3	4.7	9.6	-4.1	6.2	26.4	18.7	2.0	6.8	11.4
	(16.5)	(2.4)	(4.5)	(17.3)	(4.6)	(3.8)	(11.9)	(5.7)	(7.8)	(5.2)	(7.4)	(12.8)
2001	0.1	1.5	2.4	1.5	4.0	-1.3	4.5	13.0	8.0	9.3	7.8	9.8
	(15.7)	(2.4)	(4.3)	(16.8)	(4.4)	(4.0)	(11.8)	(5.9)	(7.8)	(5.4)	(7.4)	(13.7)
2002	1.1	-3.2	12.5	2.1	8.2	19.5	5.1	13.6	12.8	2.6	6.5	11.9
	(14.9)	(2.3)	(4.5)	(16.0)	(4.4)	(4.3)	(11.4)	(5.8)	(8.0)	(5.3)	(7.4)	(14.3)
2003	-3.2	2.2	-6.7	2.5	-6.0	4.4	-6.3	2.3	-3.9	3.6	0.7	-2.3
	(14.9)	(2.4)	(4.3)	(16.7)	(4.1)	(4.5)	(11.1)	(5.5)	(7.7)	(5.8)	(7.6)	(14.2)
2004	-0.7	1.3	-0.7	1.9	-4.2	4.5	-4.5	5.8	-4.5	-0.1	-2.1	-3.2
	(15.4)	(2.4)	(4.2)	(17.0)	(3.9)	(4.7)	(10.8)	(5.5)	(7.2)	(5.9)	(7.5)	(13.9)

자료 : 한국은행(2003), 국민소득계정

### Ⅲ. 소비부진의 원인

#### 1. 고용부진과 근로소득 감소로 인한 가계의 구매력 축소

- 9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인 고용시장 부진은 산업의 구조가 과거 노동집약적 및 제조업 중심 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및 서비스업 (비제조업) 중심 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2003년 총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9.0%, 비제조업은 81.0% 이며, 1996년에 비해 제조업은 3.7%p 감소, 비제조업은 3.7%p 증가

산업별 취업자 수 및 구성비

취업자 (천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 계	20,853	21,214	19,938	20,291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제조업	4,725	4,537	3,917	4,027	4,293	4,267	4,241	4,205	4,290
비제조업	16,128	16,677	16,021	16,264	16,863	17,305	17,928	17,934	18,267
제조업 구성비(%)	22.7	21.4	19.6	19.8	20.3	19.8	19.1	19.0	19.0
비제조업 구성비(%)	77.3	78.6	80.4	80.2	79.7	80.2	80.9	81.0	81.0

자료: 통계청, KOSIS DB

- 또한 이러한 현상은 최근 외국인 노동력에 의한 내국인 일자리의 대체도 고용사정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
-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이 점차 감소하다 최근 증가하기 시작
  - 2003년의 실업률(3.7%)은 2002년(3.3%)에 비해서 0.4%p 증가하였으며 96년에 비해서는 0.8%p 증가

- 또한 가계부문의 주된 소득원인 근로소득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소득 감소는 가계의 구매력 축소로 이어져 가계의 소비지출 감소를 초래함

### 실업률 및 가계수지 추이

(단위: 전년대비 증감률, 천명,%)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취업자	20,853 (2.2)	21,214 (1.7)	19,938 (-6.0)	20,291 (1.8)	21,156 (4.3)	21,572 (2.0)	22,169 (2.8)	22,139 (-0.1)	22,557 (1.9)
실업률	2.9	2.3	7.7	7.0	4.4	4.0	3.3	3.6	3.7
근로소득	11.9	5.5	-6.4	3.2	7.2	10.1	7.7	9.0	5.2
소비지출	13.4	4.2	-10.7	13.5	9.6	8.5	4.3	6.0	5.5

주: 근로소득 및 소비지출은 도시근로자가계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2. 가계부실의 심화로 인한 소비구조의 펀드멘틀 훼손

- o 우리나라 가계가 보유한 부채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과도하며 증가 속도가 빨라 소비구조의 펀드멘틀을 심각하게 훼손
  - 2003년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83.4%로 선진국 수준에 진입
  - 이는 선진국 가계가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

### 주요국별 금융부채/명목GDP 비율

(단위: %)

	2001	2002			2003		
	한국	한국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일본
금융부채/ 명목GDP	72.3	84.1	82.9	81.7	83.4	86.0	81.6

자료: 한국은행 ECOS DB

- 2003년 말 현재 신용카드 대출 잔액은 30조원이며,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
  - 이러한 배경에는 카드자격요건의 완화, 고금리가 적용되는 카드사로부터 받는 현금서비스의 대출 급증 등에서 기인함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증가율 추이

(단위: 억원,%)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대출 잔액	81,541	124,143	96,598	135,572	299,551	383,131	468,924	304,923	213,607
증감률	26.5	52.2	-22.2	40.3	121.0	27.9	22.4	-35.0	-29.9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 카드의 과도한 사용으로 상당한 가구가 과다부채로 인한 상환압박을 받고 있어 소득이 있어도 소비를 할 수 없는 구조를 발생
  - 2003년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 수는 372만 명이며, 경제활동 인구 6명 중 1명꼴로 추산

### 연체율 및 개인신용불량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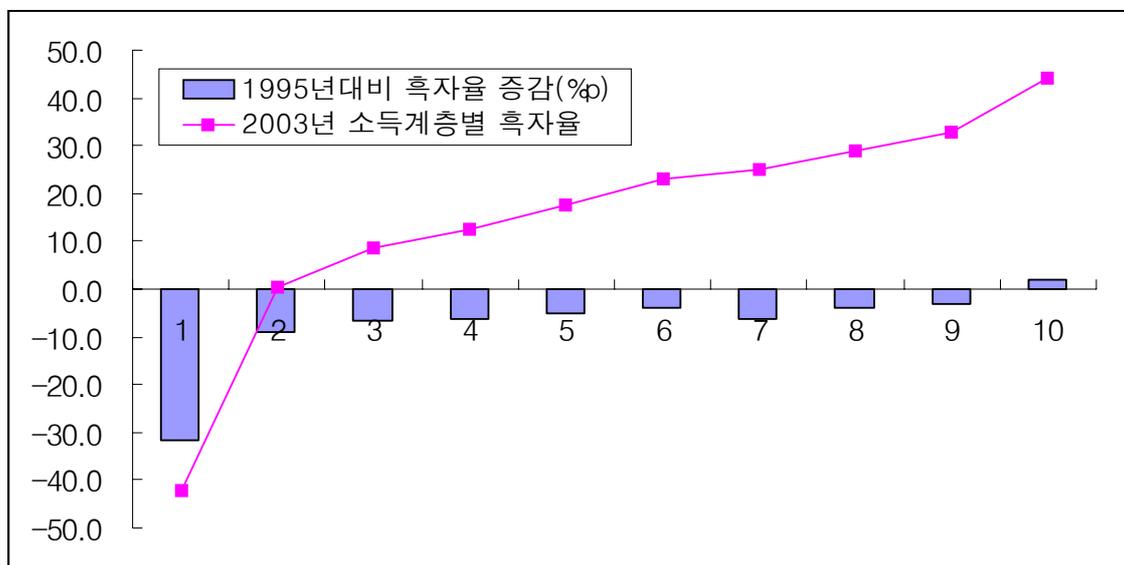
(단위: 월말 기준, 명, %)

	2002				2003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은행가계대출연체율	1.43	1.30	1.61	1.50	2.06	2.01	2.27	1.78
신용카드연체율	2.9	3.8	5.1	6.6	9.5	9.6	11.2	14.3
신용불량자수	245.5	226.0	245.5	263.6	295.7	322.5	350.2	372.0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 신용카드부채의 증가는 저소득층에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부채는 높은 금리가 적용됨에 반해 상환기간이 짧고 대출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더 많이 이용되고 있음
  -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상위 10%를 제외한 전 소득계층에서 지난 8년간 가계수지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하위 10% 층의 적자폭은 매우 크게 나타남
  - 그러나 2003년 소득계층별 가계수지에서는 하위 10%만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적자폭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무리한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가계부채에서 유발된 것으로 추정

소득계층별 가계수지 흑자율 비교



자료 :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 각년도

### 3. 상위계층 가계유동성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 미미

- 가계대출이 급증한 2001과 2002년에 하위계층의 소비증가율이 상위계층의 소비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남
  - 그러나 그 비중이 13.2%, 13.4%로 외환위기 발생 이전의 14% 수준을 하회하여 전체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상위계층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에는 하위계층보다 소비증가율이 높았으나 저금리에 의한 가계대출(12 page 참조)이 급증한 2001년 이후에는 소비증가율이 현저히 떨어짐
  - 이는 외환위기 직후에는 고소득계층 중심의 소비구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2001년 이후에는 상위계층의 가계대출이 소비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주택구입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계유동성이 소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소득계층별 소비증가율 및 비중

	상위 계층		중위 계층		하위 계층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1996	15.0	50.5	12.2	35.2	8.23	14.3
1997	2.5	49.8	4.6	35.7	6.95	14.5
1998	-10.1	52.3	-12.1	34.6	-12.99	13.2
1999	13.2	52.7	13.1	34.3	11.99	13.0
2000	9.3	52.4	9.8	34.3	7.57	13.3
2001	7.0	52.6	9.2	34.2	8.37	13.2
2002	4.0	52.2	3.5	34.4	6.21	13.4
2003	3.9	51.5	7.1	35.1	8.36	13.4

주: 상위(소득계층 30%), 중위(소득계층 40%), 하위(소득계층 30%)  
 자료 :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 각년도

#### 4.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녀 소비를 감소키는 요인으로 작용

o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상승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님

1) 기업의 자금수요가 급감함으로써 대출처를 찾지 못했던 은행들은 가계와 개인을 주요 대출처로 인식했고 무차별한 대출은 만성적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 욕구가 높은 가계를 자극하여 부동산(주택매매)으로 유입되는데 크게 기여

- 이로 인하여 주택가격이 폭등하자 가계는 부채 차입량과 속도를 증가

- 2000년 이후 기업 및 가계의 대출금리가 대폭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 비중은 감소한 반면 가계대출 비중은 증가

#### 예금은행 대출금리 추이

	2000.12	2001.12	2002.12	2003.12	2004.12
· 기업 대출(%)	8.11	6.69	6.41	6.18	5.54
· 가계 대출(%)	9.48	6.93	7.12	6.31	5.48

#### 기업 및 가계대출 금액 및 구성비

(단위: 10억원, 연말기준, %)

	대출 총액	기업		가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97	385,365	200,401	52.0	184,964	48.0
1998	366,114	200,289	54.7	165,825	45.3
1999	442,181	250,240	56.6	191,941	43.4
2000	551,872	310,804	56.3	241,068	43.7
2001	660,902	357,383	54.1	303,519	45.9
2002	862,803	471,684	54.7	391,119	45.3
2003	959,198	538,260	56.1	420,938	43.9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2) 만일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주택매매가 줄어들 경우, 개인들의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길 것임

-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일반 개인들의 소득증가보다 높은 부채이자부담 증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주택관련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음

#### 은행 주택자금대출 및 주택매매가격 증감률(%)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주택자금대출	8.5	582.7	0.0	11.8	20.8	13.9	44.9	19.2
주택매매가격	1.5	2.0	-12.5	3.5	0.4	9.9	16.4	5.7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

- o 2001년 2/4분기~2002년 2/4분기까지 가계대출에서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의 비중이 매우 높음<sup>1)</sup>
-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은 2001년 1/4분기에 30.2%의 비중에서 2/4분기에 46.0%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4/4분기이후에는 50%를 상회하였음

#### 가계대출별 용도별 구성비 추이

(단위 : %)

	2001. 1/4	2/4	3/4	4/4	2002. 1/4
주택구입	30.2	46.0	46.8	50.3	56.1
전세	2.0	1.5	1.3	1.2	0.8
사업, 부업	7.5	7.9	7.4	7.9	7.6
대출상환	29.7	15.7	14.8	12.3	9.4
내구소비재	3.4	2.7	2.5	2.5	1.9
생활비					
투자	7.7	8.0	7.2	8.0	7.2
예비자금					
기타	19.5	18.2	20.0	17.8	1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은행(2002), 은행의 가계대출 표본조사 결과

1) 한국은행(2003), '가계대출 표본조사 결과'

## 5. 최근 가계부채 수준은 ‘Boom-Bust Cycle<sup>2)</sup>’의 위험이 다소 존재

- 최근의 가계부채 수준은 향후 가계의 추가차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소비위축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우리나라도 과거 일본에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비증가를 이끌었으나 이후 부채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되면서 소비위축을 몰고 올 Boom-Bust Cycle의 위험이 다소 존재
- 일본 은행들은 83년 말부터 부동산가격이 높게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관련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린 결과 가계주택자금 대출이 83~90년 사이에 연평균 11.1%나 증가하여 민간소비가 4.1%를 나타냈으나,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90년 이후에는 민간소비가 1.1%를 나타냄

(단위: 연평균 증가율)

	상승 기간 (1983~ 1990년)	하락 기간 (1990~ 2001년)
부동산가격증감률	25.9	-15.4
주택자금대출	11.1	6.0
민간소비	4.1	1.5
경제성장률	4.8	1.1

자료 : 일본은행, 금융경제통계월보

### \* Boom- Bust Cycle

- ☞ 낮은 자금 조달비용으로 인해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후 적정수준에서 멈추지 못하고 결국은 지나친 부채로 인해 부채의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는 현상

2) <참고> ‘Boom-Bust Cycle’의 배경 및 발생경로를 참조할 것

- 2001년 이후 급등세를 지속해온 주택가격은 2003. 10월 정책당국의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 힘입어 현재까지 소폭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거래신고제’의 시행으로 주택매매의 부진과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판단
  - 또한 가계의 금융부채는 2003년 들어 정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및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강화 등으로 2002년 30.1%에서 2003년 5.3%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
- 그러나 주택가격이 안정되어도 취약계층(중하위계층)의 신용카드 불량자수의 증가로 인한 신용악화의 장기화, 누적된 가계부채 부담과 가계대출이자 등으로 가계의 자산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계 금융부채의 채무부담 개선능력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단기 내에 소비가 회복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와 함께 소비를 주도하는 고소득계층의 경우 꾸준한 자산의 증가와 특소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성향이 큰 내구재 소비에 인색
    - 또한 최근 실업률의 증가, 체감물가지표인 생활물가 상승과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은 직·간접적으로 가계의 개인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회복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봄
- 결론적으로 향후 주택가격의 안정과 부분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도, 신용불량자의 증가, 누적된 가계채무 부담 및 대출이자 등의 요인으로 단기간에 소비가 회복되기에는 힘들 것으로 판단

#### IV. 시사점

- 본 글의 분석결과는, 고용부진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와 가계부실이 소비의 부진 원인으로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하위계층의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상위계층은 가계부채를 소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주택구입 등으로 목적을 하기 때문에 가계유동성이 소비에 적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점진적인 소비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용 창출과 안정적인 구매력 창출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물류, 소프트웨어 등 고용흡수력이 크고 제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신서비스산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요청
  - 디지털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 제품·신제품 등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수요를 창출
  - 또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악화 해소, 가계자산 버블을 방지할 수 있는 가계신용시스템 구축 기반 조성이 요청됨

## < 참고 > ‘Boom-Bust Cycle’의 배경 및 발생경로

### □ 의미

- 단어 그 자체의 의미대로 수출, 투자, 상품가격 등 특정 경제변수에서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의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에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라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 관심 배경

- 최근 boom-bust cycle과 관련해서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형성된 거품과 이 거품이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경기침체 대한 연구가 각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일본의 장기불황과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에 대한 경험적인 예에서 기인

### □ 발생경로

- 자산가격, 즉 부동산이나 주가에서 발생하는 boom-bust cycle의 발생경로는 다음과 같음
  - 1) 일반적으로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제주체들은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상승의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과 금융자유화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과당 경쟁 및 느슨한 금융규제 감독으로 과도한 신용 창출
  - 2) 창출된 신용으로 경제주체들은 고위험·고수익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장래기대수익률이 상승하고 이는 다시 자산수요와 자

## 금수요의 증가로 연결

- 3) 금융기관은 자산가격 상승으로 대출의 부실위험이 크게 감소되므로 신용을 누적적으로 창출해 경제주체에게 신용을 과도하게 공급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금융부채가 급속히 증가
- 4) 자산가격버블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책당국이 경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 및 재정부문의 긴축재정을 시행하거나 주식 및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 시장안정화조치를 실시하면 장래 기대수익률과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신규 신용공급이 위축되면서 자산가격 급격히 하락
- 5) 자산가격버블이 붕괴되면서 금융기관은 신규대출의 억제와 기존 대출금의 회수과정에서 기업의 도산과 개인파산자 발생으로 금융기관도 동반 부실하여 금융 중개 기능의 작동이 멈추면서 경제적 위기 발생
- 6) 가계는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 자산효과로 소비를 줄이며, 버블이 붕괴되면서 자산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명목부채는 그대로 남게 되어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됨으로써 심각한 경기침체를 초래하여 boom-bust cycle 발생